

“전남 의대 입지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권한 아냐”

송하철 목포대 총장, 기자회견서 작심 비판
강기정 '순천 의대' 주장에 대학 통합 제동
5월 이내 통합 실패시 의대 신설까지 차질
“특정대학 단독 의대 주장 도용안돼” 강조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의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목포대학교가 최근 정치권의 전남 의대 입지 관련 공방에 대해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은 2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들을 향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입장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남 의대 유치에 대한 절차와 일정을 예외할 수 있는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송 총장은 “전남광주특별시장의 후보 공약으로 등장한 특정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주장은 양 대학 통합의 기본 전제인 동·서부 양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을 추



통합특별시장 선거 과정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입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2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특별시장의 권한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한다는 기본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결국 대학 통합을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전남 의대 입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학 통합 작업이 제동이 걸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총장은 기자회견이 순천대에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목포대와 순천대는 정부의 2030년 전남권 의대 신설 방침이 정해진 이후 교육부가 최종 대학통합신청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통합대학본부 위치’를 놓고 매주 실무진 회의 등을 열어 대학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두 대학은 지난해 말 전남도와 3차 업무협약에서 통합 대학본부와 의대를 분리 배치하기로 했다. 즉, 대학본부 소재지가 아닌 곳이 의대 소재지로 자동 결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강기정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가 지난 16일 순천시의회에서 순천대에 전남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타 후보들도 논쟁에 가세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보성에서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은 순천대 총장 간 회동 이후 실무진 회의의 또한 열리지 않는 등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목표로 한 2027년 통합대학교 개교를 위해서는 대학 입시 요강이 확정되는 오는 5월까지 통합 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기한 내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 대학이 이

르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의대 신설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송 총장은 “의과대학 설립은 특별시장의 권한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하는 정부의 권한”이라며 “특별시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총장은 강 예비후보가 주장한 ‘순천에는 1천 병상의 대학병원, 목포에는 3천억원을 투입해 4천 수준의 의료기관을 설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을 3천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 비추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타당성이 결여된 내용”이라며 “특정 대학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단독 설립한다는 주장은 전남 의대 신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송 총장은 “대학의 자율적인 신청, 교육부 심의와 확정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 소재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인이 특정 지역을 의과대학 소재지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떠나 결코 온당하지 않다”며 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들이 전남 의대 입지에 대한 주장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양서원 기자

전남도, 통합특별시 7월 출범 준비 속도

조직·재정·인사 등 핵심 과제 계획 수립
자치법규 조사·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실무준비단 확대와 핵심 과제 수립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친 통합 준비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전남도는 행정통합추진단을 실무준비단으로 전환했다. 준비단은 1국 2과 5팀 체제로 확대돼 실무통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마산·창원·진해와 청주·청원 등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행

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논의해 18개 핵심 과제를 담은 ‘행정통합 실무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료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통합 핵심과제는 조직·재정·인사·법제·전산 시스템 등이다. 조직·재정 분야는 전남·광주의 현황을 비교 분석해 차이를 조정하고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 분야는 행정부지사(부시장)를 위원장으로 한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전남·광주 자치법규 약 2천600건을 전수 조사해 통합 즉시 시행, 한시 유지, 일원화 대상으로 구분하고 단일 법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 즉시 시행할 법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출범과 동시에 시의회의 의결과

공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149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산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내부행정결재시스템, 시·도 간 통신망 연결, 관광플랫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과 통합을 추진해 행정공백과 민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통합 준비에 필요한 500억원을 정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강원원 경제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원장 등을 면담해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재정 기자

혁신당, 전남 기초단체장 6곳 공천

조국혁신당은 24일 6·3 지방선거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6명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담양군수 정철원(원 군수) ▲곡성군수 박용두(현 혁신당 전남도당위원장 권한

대행) ▲여수시장 명창환(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나주시장 김덕수(전 문재인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장성군수 김광근(현 혁신당 장성지역위원장) ▲함평군수 이윤

행(전 함평군수)을 후보로 각각 공천했다.

박용두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후보들에 대해 “지역 정치 독점 폐해 극복과 ‘부패 제도’를 지역민에게 선사할 혁신당의 대표 선수”라고 소개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일 나주와 함평을 방문해 김덕수 나주시장 후보와 이윤행 함평군수 후보를 격려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직 사퇴...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퇴임 인사를 통해 “엄중한 위원장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가올 선거의 여정을 걷는 것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신 예비후보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연 지방자치 1기 전남도위원으로 시작했던 1995년



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문재인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단, 이재명 정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 그간 광주·전남을 위해 쏟았던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는 현장에서 5국3대의 선도 모델을 직접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변은진 기자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 만들겠다”

민행배, 광주역클러스터 등 5대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선 후보인 민행배 국회의원은 24일 “전남·광주를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에서도 연대가 작동하는 도시’, 퀘벡, 몬트리올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 지역 경제의 약 1.3% 수준인 전남·광주의 사회연대경제가 통합을 통한 도농순환경제 구축으로 2-3 배 이상 성장할 잠재력



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광주역 일대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 조성 ▲사회연대경제 혁신타운 권역화 ▲국가 컨트롤타워 ‘사회연대경제원’ 유치 ▲기후·에너지·돌봄·복지 서비스 확대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상가, 사무실(특)임대]

- 광주시내전역 대로변 최고요지
- 1층점포/2-10층사무실 평수다양
- 통건물: 300평/500평/1,000평/4,000평까지다양
- 특혜: 6개월무상(일부)/집기제공/보, 월세최저
- 승강기, 주차빵

[특수매물]

- 상호물물교환(웃돈도 드릴 수 있습니다)
- 감정가, 공시지가이하 급매물도 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